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유 가 효¹⁾ 김 길 안²⁾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 512명을 조사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을 측정하였고 정서지능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정서지능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부모의 온정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태도유형에서 청소년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준상관분석 결과 부모자녀관계 중 부모의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가운데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청소년의 정서지능 가운데 특히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의사소통, 정서지능

1) 교신저자: 유가효,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E-mail: ykhljdj@kmu.ac.kr

2)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강사

I. 서 론

근대 교육은 이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또는 행복에 이르는 왕도라고 생각하고 이성의 요체인 IQ(Intelligence Quotient)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지능은 성공 또는 행복의 10~20%만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공 또는 행복의 80~90%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인성요인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인성요인을 설명해 주는 능력으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 등에 정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 또는 정서 지수(Emotional Quotient: E.Q.)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오영미, 1997, 김대라, 1999). 이 용어는 1990년 Peter Salovey와 John Mayer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5년 Daniel Goleman이 쓴 “정서 지능”이란 책이 나오면서부터이며(장현갑, 1997, 재인용), 1995년 10월 9일자 타임지에 “당신의 E.Q.는 어떠한가”란 내용이 다루어지면서 E.Q.란 용어가 세계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 198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Howard Gardner(1983)는 지능에는 일곱 가지의 지능, 즉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 지능, 대내 지능이 있다고 하였다(김대라, 1999, 재인용). 그는 이 요인들 가운데 대인 지능과 대내 지능을 합쳐 개인지능(personal intelligence)이라 불렀는데 이 능력들은 전통적인 I.Q.검사에서 고려되지 않던 요인인 정서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이원영, 1996;

김대라, 1999). 따라서 정서 지능의 개념은 Howard Gardner의 다중 지능 이론의 일곱 가지 지능 중 개인 지능과 상당히 중첩된다.

그 후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 지능을 두 차례 정의하였는데 처음의 정의는 정서지능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감지하고, 변별하며 그 정보를 사고와 행동을 안내하는데 이용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지능의 정의는 정서의 지각과 조절만이 언급되었고 정서에 대한 사고가 빠졌다는 이유로 1996년에 다시 수정되었다. 그들은 정서 지능은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시키는 정서에 접하거나 그 정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Salovey & Mayer, 1996)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Goleman(1995)은 정서 지능을 좌절 상황에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충동을 통제하고 스트레스 하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Gardner의 대인 관계 지능을 기초로 Salovey가 만든 5개 영역의 정서 지능을 이용하여 다섯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정서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 자신을 동기화 시키는 능력,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인간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요소는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분노, 우울, 스트레스 등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다. 모든 정서는 각기 나름대로 생존 가치가 있으므로 정서 관리의 목표는 정서의 억

압이 아니라 그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세 번째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능력은 목표를 향한 주의집중, 완전함과 창의성에 대한 추구의 능력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만족이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Goleman(1995)에 의하면 3, 4세 때에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연만족의 능력을 가졌던 아동들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좌절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였고, 자기주장적이며 적응을 잘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덜 위축되고 여러 압력에서 더 잘 견뎌 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청소년기의 학업 능력을 조사해 본 결과에도 충동을 억제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더 좋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 번째 요소인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상태를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공감능력이다. 공감능력은 자기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Goleman(1995)은 아동의 공감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부모의 양육 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타인이나 친구, 혹은 동물에게 어떤 고통을 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해 보도록 하면, 아이의 공감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로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은 대중적 인기, 리더쉽, 대인관계의 효과 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타인의 정서를 관리하려면 자기 관리 기술과 공감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움직임을 예민하게 느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서 지능이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서 지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자

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기분과 정서를 이용하여 적응적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신이 지닌 사회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심리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의 적응 능력의 토대가 되는 정서지능의 발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측면의 발달과 인간관계의 형성 등을 주요 하위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정서지능의 개발은 성인기보다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정서적 특성이 형성되기 전, 아직 변화 가능성이 많은 단계인 초기 아동기나 늦어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김창대, 1996). 특히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청소년기는 변화가 큰 시기로 급격히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는 시기이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잠재적 소질을 고려한 정서적인 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학습지도, 사회통제를 위한 질서교육, 그리고 기능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정서적 능력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변인은 가정, 학교, 사회이며, 그 중에서도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Kernberg(1976)이나 Bornstein(1993) 등은 정서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라고 주장했으며, Dunn과 Brown(1994)은 정서의 기술

적 습득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등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oleman (1995) 역시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무관심하고, 감정표현 방식을 비난하면서 자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박영애, 2000 재인용). 이처럼 가정은 정서지능 발달에 가장 중요한 학습의 장이라 할 수 있는데, 자녀는 정서지능을 부모가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부모 상호간에 교환되는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문용린,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Brazelton(1993)은 부모들이 아이가 삶에 성공하도록 하려면 그들의 활동에 자신감, 호기심, 기쁨과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장정희, 2000, 재인용) Huntsinger와 Jose, Larson (1998)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애정표현이 아동의 정서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의 개념을 밝힌 Goleman(1995)도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삶에 강력하고 영속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세 가지 양육방식은 첫 번째 감정을 무시하는 유형, 두 번째 방임하는 유형, 세 번째 아이의 감정을 경멸하는 유형으로 정서적 지능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긍정적 양육방식의 부모는 기본적인 감정을 알고, 다루고, 이용하는 방식과 공감하고 느낌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추미란(199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외향적, 독립성 조장적인 양육태도와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하영자(2001)는 양육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변인들 가운데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온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바람직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지능이 발달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까지의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하는 시기로서 독립하려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성급한 자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 사이에 잦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기이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자녀와 부모간의 촉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관계 확립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획득하게 하고(김영애, 1990),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김양숙, 1995; 김정희, 1987; 이경주, 1989; 이진용, 1990), 자아정체감(권혜진, 1993), 사회성(김영애, 1990), 도덕성발달(Holstein, 1972; Stanley, 1978; 김양숙, 1995 재인용), 적응수준(김중균, 1990; 이연숙, 1991), 내외통제성(김양숙, 1995)등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소수이며, 대부분이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인숙(1998)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감성지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김선홍(2001)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이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적일 때 명령적이거나 지위적인 경우보다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명령적, 지위적 통제를 받는 아동집단의 경우 인성적 집단의 유아에 비해 정서지능 점수가 낮았다.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인 수용만이 강요되고,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녀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타인을 대할 때에도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거부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정서발달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생성하기도 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자녀의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이영분, 1983).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지능 수준이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정서지능의 개발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돌봄, 통제)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도 및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돌봄, 통제)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도는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는가?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변인과 청소년의 정서지능변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및 연구 대상

2001년 7월 D시의 중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는 지리적 위치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 4개 중학교 2학년 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 설문지조사를 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부모가 모두 있고 이혼, 별거 등의 사유가 없는 512명의 자료만 분석되었다. 응답자는 남자 222(43.4%)명, 여자 290(56.6%)명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1.4%(468명)로 대부분이었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46.3%(237명)로 가장 많았고, 막내 36.7%(188명), 중간 10.2%(52명), 독자 6.8%(35명)의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중이 58.1%(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 중하, 상,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고졸, 대학원이상, 중졸, 국졸의 순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대졸, 중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기술직과 자영상공업, 서비스업이 많았고, 어머니는 무직으로, 주부인 경우가 많았다.

조사 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5문항으로 구성된 PBI(The 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Parker, Tupling & Brown (1979)이 개발하고 Carson(1987)에 의해 개정된 PBI는 각 부모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2차원(온정과 통제)의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정”차원 12문항, “통제”차원 13문항으로 구성되고 4점 Likert 형이다. 따라서 개인별 취득 점수는 부, 모에 대하여 각각 25~100점이다. 요인분석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온정이 .89, 아버지통제가 .72, 어머니온정이 .87, 어머니통제가 .70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질문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조은경(1992)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40개 문항으로 부와 자녀(20문항), 모와 자녀(20문항)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고 4점 Likert 척도로서 개인별 취득 점수는 부, 모에 대하여 각각 20~80점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부와의 의사소통이 .88이고 모와의 의사소통은 .89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서지능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지능 검사는 문용린(1997)이 개발한 중학생용(중학교 1학년-3학년)을 사용하였다.

정서지능검사는 5개 하위요인에 총 47문항이고, 3점 Likert 형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정서인식이 .79, 정서표현이 .70, 감정이입 .69, 정서조절 .80, 정서활용이 .5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서지능은 요인분석을 하여 타당도를 알아보고, 각 요인은 Cronbach α 값으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정서지능의 차이는 각각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고, 사후분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일원분산분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정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았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차이

변인	구분(사례수)	돌 봄		통 제		개방정도	
		M(SD)	t	M(SD)	t	M(SD)	t
성별	남(222)	73.03(11.83)	1.23	74.69(9.38)	1.36*	105.59(17.34)	1.56***
	녀(290)	71.20(13.10)		72.74(10.93)		101.77(21.68)	

변인	구분(사례수)	돌 봄			통 제			개방정도		
		M(SD)	F	D	M(SD)	F	D	M(SD)	F	D
출생 순위	첫째(237)	70.78(13.92)	0.93		72.86(10.77)	2.23		100.82(21.92)	3.13*	
	중간(52)	70.88(9.54)			73.42(10.19)			102.44(18.16)		
	막내(188)	73.23(11.93)			74.25(10.21)			106.23(17.99)		
	독자(35)	75.17(9.23)			75.17(7.68)			107.46(16.92)		
경제적 수준	상(13)	78.54(9.32)	12.51***	a	80.92(8.34)	14.49***	a	114.69(20.08)	10.03***	a
	중상(121)	76.27(10.61)		b	76.15(8.64)		a	109.55(18.36)		a
	중중(297)	71.78(11.26)		b	73.20(10.06)		b	102.39(19.04)		b
	중하(68)	66.74(15.05)		b	72.65(9.85)		b	99.44(19.37)		b
	하(13)	57.85(23.08)		c	56.08(14.81)		c	79.62(30.80)		c

* $p < .05$ *** $p < .001$ D : Duncan-test

다(표 1).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통제의 차원에서,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정도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로부터 통제를 더 많이 느끼면서도, 부모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의 개방정도는 외동일 때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개방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은 감정이입의 능력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의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지능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정서지능의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변인	구분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M(SD)	t		M(SD)	t		M(SD)	t	
성 별	남	12.58(2.83)	1.18		9.02(2.95)	1.19		7.60(2.81)	1.05*	
	녀	12.29(3.08)		9.43(2.71)	8.07(2.89)					
변인	구분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M(SD)	F값	D	M(SD)	F값	D	M(SD)	F값	D
출 생 순 위	첫째	12.17(3.22)	1.02		9.13(2.94)	1.11		7.85(3.01)	.14	
	중간	12.58(2.72)		9.31(2.72)	7.73(2.67)					
	막내	12.61(2.68)		9.24(2.73)	7.90(2.71)					
	독자	12.49(3.06)		10.06(2.65)	8.14(3.04)					
경제적 수 준	상	12.69(3.01)	1.31		9.46(4.77)	3.74***	a	7.77(3.19)	.51	
	중상	12.73(2.90)		9.31(2.57)	a		8.19(2.86)			
	중중	12.26(3.06)		9.26(2.77)	a		7.75(2.79)			
	중하	12.24(2.78)		8.67(2.65)	a		7.85(3.14)			
	하	13.77(2.20)		6.77(3.37)	b		8.00(2.88)			
변 인	구 분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정서지능 전체		
		M(SD)	t값		M(SD)	t값		M(SD)	t값	
성 별	남	18.62(5.47)	1.07		14.87(2.24)	1.27		62.63(10.31)	1.02	
	녀	19.44(5.28)		14.77(1.98)	64.03(10.19)					
변인	구분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정서지능 전체		
		M(SD)	F	D	M(SD)	F	D	M(SD)	F	D
출 생 순 위	첫째	19.14(5.53)	0.25		14.68(2.13)	1.13		63.00(10.85)	.43	
	중간	18.52(5.00)		15.00(1.89)	63.13(8.01)					
	막내	19.20(5.27)		14.83(2.11)	63.86(9.95)					
	독자	18.89(5.53)		15.39(2.05)	67.73(10.97)					
경제적 수 준	상	22.15(5.54)	3.96***		14.46(2.96)	2.21		66.54(11.14)	2.54*	
	중상	19.85(5.14)		15.10(2.06)	65.00(10.07)					
	중중	19.05(5.39)		14.84(2.01)	63.41(10.45)					
	중하	17.99(5.34)		14.19(2.33)	61.01(9.59)					
	하	15.46(4.77)		15.08(1.25)	59.08(7.23)					

*p<.05 D : Duncan-test

표 3. 양육태도 하위요인과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1	2	3	4	5
1.아버지의 돌봄					
2.아버지의 통제	.54***				
3.어머니의 돌봄	.37***	.40***			
4.어머니의 통제	.40***	.75***	.55***		
5.아버지의 의사소통 개방도	.73***	.56***	.55***	.45***	
6.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도	.56***	.42***	.73***	.55***	.81***

*** $p < .001$

다.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정서활용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온정, 통제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도는 상호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 모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비교적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의 통제와 모의 통제 간에, 부의 의사소

통 개방도와 모의 의사소통 개방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 각자의 온정과 통제, 온정과 개방도, 통제와 개방도 간에도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에 대해 통제적이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개방적이며 또한 부모가 통제적일수록 의사소통도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관계 하위 요인들과 정서지능 하위영역간에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온정과 부·

표 4. 부모-자녀관계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하위영역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아버지의 돌봄	.13***	.24***	.17***	.24***	.19***
어머니의 돌봄	.15***	.27***	.15***	.29***	.27***
아버지의 통제	.16***	.22***	.08***	.16***	.18***
어머니의 통제	.16***	.22***	.08***	.16***	.19***
아버지의 의사소통 개방도	.12***	.28***	.09***	.21***	.24***
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도	.15***	.31***	.14***	.24***	.29***

* $p < .05$ *** $p < .001$

모의 통제정도, 의사소통개방도는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 대부분의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 부모의 통제는 감정이입과 관계가 없었다.

부모로부터 애정과 보호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부: $r=.24$, 모: $r=.27$),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부: $r=.24$, 모: $r=.28$), 자신의 정서를 이용,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

는 능력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 $r=.18$, 모: $r=.27$). 특히 부의 온정보다는 모의 온정이 청소년의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과 약간 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지능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부의 통제는 정서표현($r=.22$), 정서활용($r=.18$)과 상관이 있었고, 모의 통제 역시 정서표현($r=.22$), 정서활용($r=.18$)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와

표 5.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

변 인	구 분	정서 인식			정서 표현		
		M(SD)	F	D	M(SD)	F	D
양 육 태 도	돌봄높음 · 통제높음	14.48(2.59)	7.67***	a	10.50(2.26)	10.81***	a
	돌봄높음 · 통제낮음	13.28(2.52)		a	10.05(2.26)		a
	돌봄낮음 · 통제높음	11.75(2.77)		b	8.10(3.45)		b
	돌봄낮음 · 통제낮음	11.59(3.25)		b	7.63(2.70)		b
변 인	구 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M(SD)	F	D	M(SD)	F	D
양 육 태 도	돌봄높음 · 통제높음	9.00(3.09)	4.42**		21.72(3.44)	15.83***	a
	돌봄높음 · 통제낮음	8.75(2.69)			21.62(4.97)		a
	돌봄낮음 · 통제높음	7.44(2.93)			17.69(7.46)		b
	돌봄낮음 · 통제낮음	7.38(2.94)			16.87(5.12)		b
변 인	구 분	정서 활용			정서지능 전체		
		M(SD)	F	D	M(SD)	F	D
양 육 태 도	돌봄높음 · 통제높음	16.00(2.03)	17.30***	a	69.88(10.19)	26.88***	a
	돌봄높음 · 통제낮음	14.61(1.91)		a	67.11(6.46)		a
	돌봄낮음 · 통제높음	14.14(1.81)		b	58.27(11.66)		b
	돌봄낮음 · 통제낮음	13.67(2.26)		b	55.14(9.58)		b

** $p<.01$ *** $p<.001$ D : Duncan-test

모의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의사소통 개방도는 정서표현($r=.28$), 정서활용($r=.24$)과 상관이 있고, 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도 역시 정서표현($r=.31$), 정서활용($r=.28$)과 상관이 있는데 어머니의 영향력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유형과 청소년의 정서지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

앞의 분석 결과 부·모의 온정과 통제차원의 상관이 각각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므로, 여기에서는 부·모의 온정점수와 통제점수를 합산하여 양육태도 유형을 나누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의 두 차원의 점수에서 각각 상위 30%, 하위 30%에 속하는

대상자를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을 4가지 유형(온정고·통제고, 온정고·통제저, 온정저·통제고, 온정저·통제저)으로 조합하여 이 유형들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5).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총점 뿐 아니라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지능 전체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고·통제고’ 집단과 ‘온정고·통제저’ 집단이 ‘온정저·통제고’ 집단과 ‘온정저·통제저’ 집단보다 더 높은 정서지능 점수를 보였다. 즉, 통제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부모의 온정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정서지능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온정이 낮은 집단에서는 통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정서지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온정과 통제가 상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부모가 애정적이고, 보호적이라고 지

표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의 차이

변 인	구 분	정서 인식		정서 표현	
		M(SD)	t	M(SD)	t
의 사 소 통	개방형	12.67(2.92)	2.95*	10.09(2.70)	32.24****
	문제형	12.09(3.34)		8.39(2.95)	
변 인	구 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M(SD)	t	M(SD)	t
의 사 소 통	개방형	8.48(2.82)	9.26*	20.79(4.72)	35.12****
	문제형	7.59(2.77)		17.63(5.33)	
변 인	구 분	정서 활용		정서지능 전체	
		M(SD)	t	M(SD)	t
의 사 소 통	개방형	15.52(2.23)	34.87****	67.52(9.25)	54.57****
	문제형	14.23(1.89)		59.97(10.02)	

* $p<.05$ *** $p<.001$

각하는 청소년집단은 부모로부터 받는 통제에 상관없이 정서지능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부모가 제재가 많고, 통제적이라고 느껴도 통제마저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보다 정서지능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의사소통 개방도 점수가 상위 30%, 하위 30%에 속하는 대상을 추출하여 상위 30%를 개방형, 하위 30%를 문제형으로 의사소통 유형을 명명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총점뿐 아니라 하위 영역 모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즉 개방형과 문제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변인과 청소년의 정서지능변인과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모-자녀관계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평가변인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제1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제1정준변량함수에 대해 표 7에서는 각각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 정준적재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L^2), 각 변인의 L^2 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2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 \Sigma L^2$ 을 제시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의 정준적재치가 높은 예측변인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도(.937)와 부모의 온정(.923)으로 군내변량의 39.6%, 38.4%, 부모의 통제(.698)는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 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서지능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인은 정서표현(.729)으로 군내변량의 31.9%가 설명되었으며, 정서조절(.662)은 26.3%, 정서활용(.659)은 26.1%가 설명되었다. 이것은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부모의 애정적이고 따뜻한 태도와 부모-자녀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정서지능 중에서도 특히 정서표현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으로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표 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변인군과 청소년의 정서지능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변량함수	Canonical R	정준근	F	자유도
제 1 정준함수	.427	.182	8.929***	15
제 2 정준함수	.131	.017	1.789	8
제 3 정준함수	.088	.008	1.494	3

*** $p < .001$

표 8. 예측변인군과 평가변인군의 정준가중치(W) 및 정준적재치(L)

변수	W	L	L ²	% Σ L ²
예측변인				
1.돌봄	.459	.923	.851	.384
2.통제	.134	.698	.487	.220
3.의사소통 개방도	.515	.937	.877	.39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전체			2.215	
평가변인				
1.정서인식	.094	.365	.133	.080
2.정서표현	.572	.729	.531	.319
3.감정이입	.147	.358	.128	.077
4.정서조절	.335	.662	.438	.263
5.정서활용	.416	.659	.434	.261
청소년의 정서지능 전체			1.664	

W : 정준가중치 L : 정준적재치

있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부모-자녀관계와 정준평가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평가변인인 청소년의 정서지능 변인이 정준예측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준상관 즉 교차상관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정서지능의 교차상관에서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인은 의사소통 개

방도(.400)와 온정(.394)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청소년의 정서지능 요인은 정서표현(.312)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표 9. 정준평가변수군과 정준예측변수군간의 교차상관계수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1.돌봄	.394	1.정서인식	.156
2.통제	.298	2.정서표현	.312
3.의사소통 개방도	.400	3.감정이입	.153
		4.정서조절	.283
		5.정서활용	.282

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도가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관계의 중요성을 밝히고, 정서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온정, 통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도,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제재를 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의사소통의 개방도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어머니의 거부·제재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낙주·최보가(1996),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우리 나라 가족문화의 특성상 부모들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성취기 대와 포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남아의 입장에서 ‘통제’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활동수준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체벌과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영애, 2000).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더 개방적이라고 지각하는 결과는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의 개방정도는 외동일 때가 높았다. 근래에 들어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출생순위변인의 영향이 의미가 없게 됨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더 애정적이고, 통제적이며,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더 개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층인 가정의 아동이 노동계층 가정의 아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밝힌 박영애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빈곤, 실업, 가족의 병과 같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위기는 부모들을 우울, 과민하게 하고 부부간 갈등을 일으키며 자녀 발달상의 문제나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물리적 체벌을 사용하게 한다는 Mdoyd(1990)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는 이향련(1986), 이은화(1988), 최선남(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정서지능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정이입, 즉,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의 연령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능력, 타인정서 인식,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 정서지능 전체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이 차이가 있음을 밝힌 김은정(1998), 홍강의(1984), 이병래(1997), 오영미(1997), 윤현석(1997), 김정희(2000), 김선홍(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심리적으로 성숙이 빠르다는 지금까지의 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풍부한 감정이입과 정교하고 섬세한 감정조절을 기대하는 사회적 영향의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능 총점과 정서표현, 정서조절이 높게 나타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애 등(2000)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 차이가 없는 것으

서지능에 대한 온정·수용성의 중요성과 비중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거부·제재의 전반적인 부정적 효과는 온정·수용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성질 또는 작용방향이 달라져서 온정·수용성이 높을 때는 거부·제재가 높아지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나 온정·수용성이 낮을 때는 거부·제재가 높은 쪽이 낮은 쪽보다 오히려 정서지능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나 위 연구와의 차이점은 온정·수용성의 긍정적 효과가 거부·제재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결과에서는 온정과 통제가 둘 다 높은 경우 정서지능도 높게 나타나 양육태도의 통제차원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아의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장정희(2000), 이은숙(2001)의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응답자가 부모인가, 청소년인가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즉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나 제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한국가정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관심의 표현으로 언어적, 또는 행동적인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자녀 역시 부모의 통제나 제재를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사춘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하여 거리감은 증가하고 유대는 단절되며 갈등과 긴장이 증폭되는 관계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춘기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을 ‘청소년과 부모와의 분리’로 개념화하는 입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 관점과는 달리 정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부모의 지도와 지지를 필요로 하며 부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Youniss & Smollar, 1985). 부모로부터 기능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모에 대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고(Sullivan & Sullivan, 1980), 부모를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미래의 계획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부모로부터 충고를 구한다고 보고한다(Youniss & Smollar, 1985; 오영미, 재인용). 특히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청년 초기의 중학생인 것도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당연시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찍이 양육태도의 차원론적 접근에서 Schaefer의 연구를 비롯, 많은 연구들이 수용적,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했는데, Baumrind는 이와 달리 통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권위 있는 양육태도가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연구들(Anderson, et al., 1989; Demo, et al., 1987)이 통제가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짐을 보여주었고, 부모의 엄격한 통제가 부모의 애정, 민주적 의사결정방식과 결합되면 자아 존중감이 고양된다는 주장들(Coopersmith, 1967; Loeb et al, 1980; Comstos, 1973; 김경연, 1987)도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통제를 새로운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결합될 때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어 통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구별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통제는 합리적인 통제임에 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척도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정서지능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을 가장 잘 예측해 주어 부모의 따뜻한 대화와 원활한 대화가 자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정서표현능력과 가장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설명하는 정서지능 요인은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정서지능에 대한 설명력도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를 자녀의 정서지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힌 바 있는 박영애 외(2000)의 연구와도 일치하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군내변량의 92.1%를 차지하여 다른 양육태도 요인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중 부모의 온정과 의사소통의 개방도가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조명해보아야 할 것은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애정적인 제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정과 더불어 자녀에게 제재를 가할 때에도 전달과정인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가 한국가족의 문화적 특성에서 오는 것인지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자녀의 정서능력 발달

을 위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 모델 및 부모교육 모형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서지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모-자녀관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도만을 살펴보았는데,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적 변인이나 가정환경 변인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와 자녀의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모델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정서능력 발달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행동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혜진 (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라 (1999). 부모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김선홍 (200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 (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1990).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1998). 유아의 정서지능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균 (1990). 모자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자녀의 적응수준.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1996). “감성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명대 교육학 연구, 14, 128-142.
- 문용린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박영애, 최은경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 (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5-2, 161-182.
- 손낙주 · 최보가 (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기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07, 245-257.
- 오영미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석 (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주 (1989).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능(EQ)와의 관계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 (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1983). 어머니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적 관계 개선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96). 어머니의 자녀교육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숙 (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유형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1998).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지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 (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희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갑 (1997). “정서지능 개관: 신경과학적 이해”, 영남대 인문연구 32, 97-136.
- 조은경 (1992). 부모 ·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 심리적인거리 ·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최선남 (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미란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배경변인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원광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자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 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s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ornstein, P., Fitzgerald, M., Pieniadz, J., D'Ari, A., (1993).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predictor of Early Adolesc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4), 448-471.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20-137.
- Dunn, J., & Brown, J (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34(4), 747-756.
- Kernberg, O. (197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ew York: Jason Aronson.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Parker, G., Tulp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vor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 for Educations*. 105-153. New York: Basic Book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dolescent Emotional Intelligence

Ka Hyo Yoo

Kil Ahn Kim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parent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adolescent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adolescent. The subjects were 512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city. The result showed that adolescents whose parents had parenting style combined warmth with control and communicated openly with their children attained most high scores in all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Finally, th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group of parent-child relation variables and the group of emotional intelligence variables revealed that parental warmth and open communication ha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utility of adolescents.

Keywords: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